

이 가게 어때요?

빛으로 만드는
행복 공간

왼쪽: 보는 순간 무조건 갖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쏙드는 테이블 스탠드이다. 다른 조명들과는 달리 지지대 부분이 타원형의 불투명 유리로 장식되어 있어 특이하다. 우측부터: 1)베이지색 큰 갓에서 온방을 가득 채울것 같은 빛... 나무의 거친결을 그대로 느낄수 있는 나무쇼파와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 까지 모든것이 조화로운 작은 공간이다. 2)거친 형질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전등갓을 통해 다소곳하게 비춰오는 빛! 어린 시절 다소곳하게 쪽진 은색 머리에 삼베옷을 곱게 입으셨던 할머니의 모습을 아련히 생각나게 한다. 3)Paul Mirror라고 이름 붙여진 이 거울은 Antique Bronze Frame이 16각형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하고 있으며, 양쪽에 놓여있는 스탠드 지지대의 모습도 거울 못지않게 특이한 모습이다.



블게 떠오르는 노을을 뒤로한채 서있는 연인의 얼굴이 평소보다 예뻐보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혹은 형광등 불빛보다 백열등 불빛 아래에서 거울에 미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고운 얼굴에 자못 놀란적이 있는지? 집안에서 조명이 중요시 되는 단적인 예다. 그래서 조명을 "인테리어의 꽃" 이라 말하기도 한다. 굳이 인테리어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명 기구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만 하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차분하고 편안한 조명을 채택해 실내 분위기를 바꿔보라. 몸과 정신이 현충 여유를 찾을테니까.

그래서 조명과 소품의 데코레이션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 나섰다. 라브레아와 베버리가 만나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한 가운데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과 패션 아이템, 액세서리 등을 선보이는 가게들이 부쩍 눈에 띈다. 이들 중에 쇼윈도 안쪽에 가득한 인테리어 소품들 사이로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조명기구들로 빛을 낸 곳이 개성만점인 가구 소품샵 GIBSON이다. 평소에 인테리어 집이나 관련 정보를 즐겨 찾는 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이름난 곳인데 샵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기사와 광고들을 보니 그 유명세가 실감이 나는 곳이다. 이곳은 상호가 말해 주듯이 UCLA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Gary Gibson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와 샵의 복합공간이다. 이 Studio에서는 Bronze나 Stainless steel을 이용한 최고급의 가구 Collection과 직접 제작한 Art 작품들이 있다. 특히 몇년전 소개되어 선종을 일으켰던 Tibetan rugs가 눈길을 끄는 곳이다. 그리 넓지 않은 매장에 아기자기하게 잘 정돈된 작품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화려하진 않지만 곳곳에 센스있게 배치한 조명기구 덕분이다. 이것이 전문 조명매장과 다른 GIBSON만의 감각이다. GIBSON은 LA매장 말고도 Chicago, New York Studio와 Website를 통해서도 다양한 인테리어와 Item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소품과 빛의 조화로 이루어진 전문가의 인테리어 감각을 느끼게 하는곳, GIBSON에 들려봄이 어떨까? 글 | 사진 Allie Ho



영업시간 Mon.-Fri. 9am-6pm, Sat. 10am-6pm,
Sun. by appointment only 문의: 323-934-4248
http://www.garygibson.com